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① 비구 스님들의 독립운동

# 불법으로 항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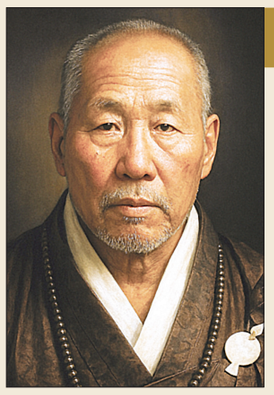
〈佛法〉

나라를 되찾기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희생 속에서 맞이한 광복(光復).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한다.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교육, 조직,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권과 불법(佛法)을 지켜낸 스님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새기게 한다.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불교계 독립운동가 중 대표적인 스님 일곱 분을 소개한다. 스님들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로 복원한 현대적 이미지도 함께 싣는다. 법명과 대중에 친숙한 속명을 함께 썼으며 차례는 생년 순이다. 다음 편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리=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강대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주인국이 되어라." (백용성 스님 유훈)



## 백용성 (1864~1940)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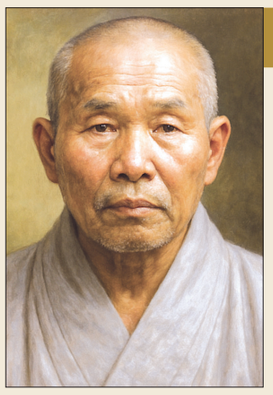
백용성 스님은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한국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이다. 식민통치 하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불교의 역할을 고민했다.

1911년 스님은 조선총독부 건너편에 사찰 '대각사'를 창건했다. 대각사를 중심으로 왜색불교 추방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곳에서 스님과 독립운동가들의 교류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1919년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렸다. 스님은 현장서 체포돼 1년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후 스님은 민족정신을 되살리는데 불교가 중심이 되기 위해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에 주력했다.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등 주요 경전 20여 종을 한글로 완역해 보급했고, 이는 당시 경전을 접하기 어려웠던 대중의 정신적 광복을 도왔다. 일요어린이법회, 거리 포교, 찬불가 보급 등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도 이바지했다.

그는 일본인 승려의 한국 불교계 침투 등에 반대하는 '건백서 제출사건'을 주도하며 불교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분명히했다. 또 사원경제의 자립을 위해 1929년 경상남도 함양에 자급형 농장인 화과원(華果院)을 설립하고, 선농불교(禪農佛教) 운동을 펼쳤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일본이 끝내 과오를 뉘우침이 없다면 우리 민족은 최후의 1인까지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혈전(血戰)을 불사코자 선언하노라." ('대동단 선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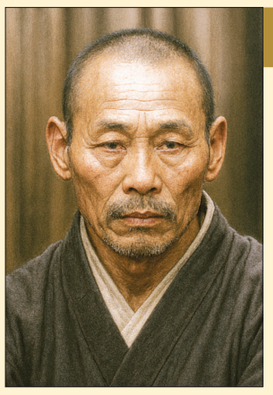
## 백초월 (1878~1944) 스님

백초월 스님은 3·1운동 민족대표인 백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수감된 후 불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영원사 주지 소임을 맡아 재건 불사를 이끌던 스님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경성 중앙학림(동국대 전신) 내에 한국민단본부(전국불교도독립운동본부)라는 비밀단체를 설립하고 본부장을 맡아 임시정부와 독립군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을 주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비밀 소식지 '혁신공보'를 간행했다.

1919년 11월 만세시위운동에 동참했는데, 이때 배포된 '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해 12월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체포돼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1920년 2월에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유학생들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강제 귀국 당했다. 이후로도 항일 비밀 결사 의용승군(義勇僧軍), 항일 비밀 결사체 일심교(一心教)를 결성해 군자금을 모금하다 수차례 체포됐다. 그럼에도 스님은 강연과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1939년 만주로 가는 군용 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는 격문을 쓴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스님은 일제에 체포되어 청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옥중 순국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가 없는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자라."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中)



##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

1879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시대의 깨어있는 지식인이었고, 불교계 대표 독립운동가였다.

민족의 독립을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여긴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불교계를 대표해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스님은 독립선언서 인쇄·배포 등에 앞장섰고, 독립선언서 낭독 직후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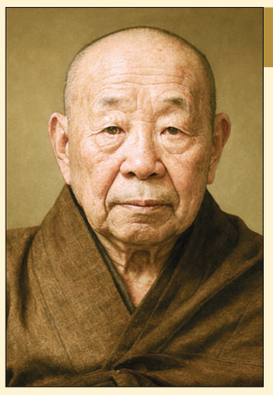
옥중에서도 일제의 회유에 흔들림 없던 스님은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불교계 항일단체 '만당'에서 당수로 추대돼 활동했고,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다양한 민족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스님은 문학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데도 매진했다. 1926년 발표한 시집 〈님의 침묵〉은 민족의식과 불교정신이 결합된 저항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풀어낸 작품으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이기도 한 만해 스님은 불교 개혁 운동을 통해 불교계의 변혁도 주도했다. 불교 홍포와 민족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월간 잡지 '유심'을 창간했고,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을 간행해 불교의 현실 참여를 이끌었다. 조선불교청년회 총재를 맡아 청년 불자들 시대정신을 일깨우기도 했다.

오직 민족의 독립에 생을 바친 스님은 1944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조국 해방을 1년 앞두고 입적했다.

"대중이 읽을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 대중이 당장 이해할 용어를 만들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건지는 지름길을 마련하기에 인색하지 말자." (해인사에서 열린 '역경용어제정 회의' 中)



## 운허 용하(1892~1980) 스님

운허 용하 스님은 일제 침략에 맞선 항일투사이자 인재 양성에 매진한 교육자였고 불교 경전의 우리말 번역에 헌신한 수행자였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운허 용하 스님은 한일 강제 병합 후 고향을 떠나 평양 대성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학했다. 1912년 1월 만주로 건너간 스님은 봉천 동창학교 교원으로 근무했고, 같은 해 6월 항일단체인 대동청년단에 가입해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3·1운동 직후에는 민족운동단체 한족회의 기관지 한족신보(韓族新報) 사장으로 신문을 간행했고, 1920년 2월에는 독립투쟁단체 광한단(光韓團)을 조직했다.

국내 조직과의 연결을 위해 입국했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강원도 양양 봉일사로 은신한 것을 계기로 1921년 경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29년 다시 만주로 건너가 봉천 보성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1930년 9월 조선혁명당에 가입해 조국광복을 위해 활동했다. 1936년 남양주 봉선사에 홍법강원(弘法講院)을, 해방 후인 1946년 4월에 광동중을 설립하는 등 평생 교육 불사에 헌신했다. 1953년에는 애국동지원호회가 편찬한 〈한국독립운동사〉의 출간에 참여했다.

운허 스님을 기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경(譯經)'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경전의 한글 번역을 평생의 원력으로 삼고 1964년 개원한 동국역경원의 초대 원장을 맡았다. 한국전쟁으로 불탄 봉선사를 재건하며 대웅전에 '큰법당'이란 한글 편액을 걸었으며, 1961년 국내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했다.



## 운암 김성숙(1898~1969) 스님

운암 김성숙 스님은 1916년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해 남양주 봉선사에서 월초 스님 문하에서 수행했다. 봉선사에서 3년간 머무르며 '성숙'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민족대표 33인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과 손병희(1861~1922)를 만난 김성숙 스님은 만해 스님의 지도 아래 3·1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순재, 김석로, 강완수 등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파리강화회의에서 12개국이 독립국이 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조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격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출소해 봉선사로 잠시 되돌아갔으나 곧이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합법적 단체인 조선무산자동맹,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충북 괴산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의 진상을 서울의 본회 및 각 지방의 지회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광복 후에는 혁신정당을 조직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1969년에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8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범산 김법린(1899~1961) 스님

"일본은 국가의 가장 고귀한 임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 가치는 이에 의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1927년 2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에그몽 궁전에 일본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한 한국 청년의 유창한 프랑스어 연설이 궁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시 28세 청년이자 4인의 한국 대표단 중 한 사람으로 연설에 나선 범산 김법린 스님의 목소리였다.

스님이자 독립운동가·교육자·정치인이었던 김법린 스님은 일생을 독립운동, 민족 교육계몽, 사회참여를 실천했다. 1919년 만세운동 후 중국 상해로 망명, 한국민단본부 대표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1928년 불교계의 요청으로 귀국해 중앙불교학교 철학 교수, 불교 교학 강의, 불교청년회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1930년에는 만해 스님과 항일비밀결사조직 '만당'을 창당,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도 진력했다. 광복 후 불교 교단 총무원장, 관선입법의원, 문교부장관, 민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지성인으로 평가받는다. 혜화동에 있던 모교를 동국대로 승격하는데 힘썼고 동국대 4대 총장을 지내다 1964년 심장마비로 순직했다.



## 효당 최범술(1904~1979) 스님

효당 최범술 스님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해인사 지방학림에 재학하면서 서울에 유학 중인 최원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동지들과 함께 1만여 매를 인쇄, 합천·의령·진주·사천 등에 배포하면서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를 주동했다.

일본 동경 유학시절인 1920년대에는 월간 '불령선인'을 발간한 것이 발각돼 3년 여간 도쿄 각 구의 경찰서유치장을 옮겨 다니며 고문을 당했다. 1931년 항일비밀결사조직 '만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붙잡혀 징역 6월형을 받았다.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검돼 투옥됐다. 조선불교위문사로 중국에 다녀온 해이기도 한 1938년 후반 '만당' 당원이 하나씩 구속되면서 최범술 스님 역시 검거돼 경기도 경찰부에 4개월간 피검됐다. 1942년 7월 김법린 스님 등과 해인사·다솔사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1943년에는 단재 신채호 문집 자료를 수집하던 것이 적발돼 경남도 경찰국에 13개월간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차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초의 선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인물도 바로 최범술 스님이다.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차나무를 심어 차를 직접 만들고 한국 최초의 상업판 단행본인 〈한국(韓國)의 차도(茶道)〉를 저술해 한국 차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차문화를 대중화시켰다.